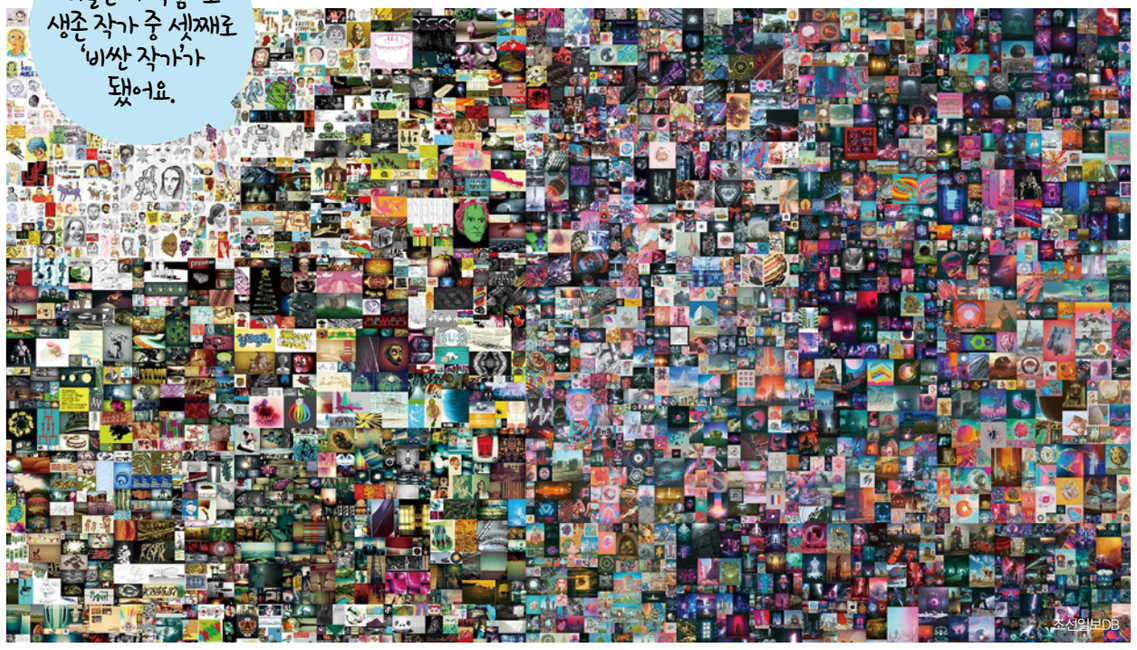
8주차

20 NFT미술

❝ 거장도 제친 NFT미술… 디지털 아트의 꽃인가, 투기인가 ❞



772억 원에 팔린 비플의 디지털 아트 '매일:첫 5000일'.

올해 3월 크리스티 온라인 경매에서 디지털 아트 작가 비플(본명 마이클 원클맨)의 작품 '매일: 첫 5000일'이 6930만 달러(772억 원)에 낙찰됐다. 현존 작가의 작품 낙찰 가격 중 제프 쿤스(66)의 '토끼', 데이비드 호크니(83)의 '예술가의 자화상(두 사람이 있는 수영장)'에 이은 3위의 기록이었다. 비플의 작품은 거장 윌리엄 터너, 조지아 오키프나 프란시스코 고야의 경매 기록마저 깼다.

'매일:첫 5000일'은 비플이 2007년부터 매일 온라인에 올린 이미지를 콜라주해 JPG그림 파일로 만든 작품이다. NFT도 발행됐다. 277년의 역사를 가진 크리스티도 NFT미술을 경매하는 건 처음이었다. 대부분의 작품은 추정가에서 경매를 시작하지만, 이 작품은 추정가 없이 100달러에서 경매를 시작했다. 입찰자 33명 중 3명만이 크리스티의 기존 고객이었다. 크리스티는 최초로 암호 화폐인 이더리움으로 그림 값을 지불하는 걸 허용했다.

NFT미술이 새로운 금맥으로 떠오르자 경쟁 경매사인 소더비와 필립스도 뒤따라 NFT미술 경매를 열었다. 유명 작가 데미언 허스트는 자신의 작품 1만 점을 NFT로 발행해 판매하겠다고 나섰다. NFT미술은 '복제 불가능한 아우라'를 절대시하던 미술계의 뿌리 깊은 관념을 뒤흔들었다. 디지털 아트 작가들은 환호했다. 하지만 미술계에선 '예술인가, 투기인가'라는 뜨거운 논쟁이 불거졌다.


게티이미지코리아

NFT: 블록체인 기술로 만든 인증서

Non Fungible Token(대체 불가 토큰)의 약칭으로, 블록체인 기술로 만들어진 일종의 인증서. 각 NFT마다 고유의 값을 지니고 있어 다른 NFT로 대체할 수 없고 그 정보는 위·변조가 불가능하다. JPG, GIF, 오디오 등 다양한 디지털 파일의 진품 증명서처럼 쓰인다. 디지털 아트의 경우, 작품의 NFT를 발행해 NFT 거래소에 등록하면 작품 생성시간, 소유자, 거래 내역 등이 블록체인을 통해 기록된다. 디지털 아트가 책장의 책이라면, NFT는 도서관의 열람카드에 비유할 수 있다. 열람카드에 도서 정보와 대출자가 다 기록됐지만, 그 자체가 책은 아닌 것처럼 NFT도 인증서일 뿐 작품은 아니다.

NFT와 디지털 아트는 주객전도?

JPG나 GIF파일 형태로 만들어지는 디지털 아트는 기존 미술시장에서 가치를 거의 인정받지 못했다. '복붙'(복사+붙여넣기)이나 파일 공유로 무한히 복제될 수 있고, 누구나 소유할 수 있어 소장 가치가 없었다. 하지만 NFT를 발행하면 작품에 대한 소유권을 분명히 할 수 있고 끊임없이 복제가 되더라도 소유자의 원본을 인증할 수 있다. 디지털 아트도 매매가 이뤄질 수 있게 된 것이다.

문제는 NFT를 발행한 디지털 아트의 가치가 정말 고야의 작품보다 높냐는 것이다. 논쟁에 불을 붙인 것은 현존 작가 중 경매 최고가 2위를 기록한 데이비드 호크니였다. 그는 팟캐스트에서 "비플의 작품은 보잘것없고 우스꽝스럽다"며 "NFT는 국제적인 사기 · 협잡꾼들이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디지털 아트가 실제 갖고 있는 예술 가치보다 과대 평가를 받고 있으며, 그건